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8호 【루계 제26212호】 주체107(2018)년 12월 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전을 벌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전의 포성을 울리며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중을 총공격전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일으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붉라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정주시와 구성시, 룡천군과 염주군, 은진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올해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발동하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당조직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여러가지 질좋은 화장품개발에서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게 하고있다.

수풍발전소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일군들과 예술인들, 작가들이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적극 북돋아주도록 하고있다.

지외강연강사, 공로자강연강사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신의주시와 정주시, 염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출판물보급소들에서도 도서해설선전과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생산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수만정의 침목을 교체

평양철도국에서

철길강도를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청년선, 옹진선, 은률선, 장연선에 대한 수만정의 침목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철도국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속에 철길강도를 높이는데서 침목교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모부에서는 철도성적인 작전에 따라 철도현대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최단기간에 침목교체공사를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공사에 필요한 물전기재들과 각종 침목, 고착품을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침목교체, 자갈다지기 등 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해주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침목교체전투의 앞장에 섰다.

해주철길대, 신천철길대아래 여러 철길소대에서 달려나온 철길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운양철길소대, 장방철길소대 전투원들은 합리적인 침목교체방법을 받아들이고 철길기술보수를 철저히 따라세우면서 공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웅진선침목교체공사를 맡은 자양철길소대, 신강령철길소대 철길원들은 평양철도국아래 여러 청년철길기계화기동중대 전투원들과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1만정이 넘는 침목을 교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천철길대의 전투원들도 레루깔판, 누름쇠를 비롯한 고착품조립과 레루수평잡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침목생산을 맡은 전투현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자체의 힘으로 무불트콩크리트침목생산공정을 꾸려 많은 침목을 보장하였다.

고착품생산을 맡은 해주철길대 철길기공소대의 전투원들은 공기함마와 각종 프레스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기술개조하여 침목교체공사에 이바지하였다.

철도성과 평양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자주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자갈깔기와 철길주변정리에 애국의 마음을 바쳤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 철길강도를 높이는 사업에서는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유리제품의 가지수를 늘인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2차가공유리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룡전기재제작에 필요한 앞창유리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청진뻐스공장을 비롯한 룡전기재생산단위들에 여러종의 앞창유리를 생산하여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고 다양한 건재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며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앞창유리를 생산보장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과제를 정하고 앞창유리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공장의 생산현장에서는 앞창유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기술자들은 강질유리직장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앞창유리곡률반경의 치수를 설계의 요구대로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앞창유리의 곡률반경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구도 자체로 제작하였다.

앞창유리생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가 해결되는데 따라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형타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공무동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어려종의 새형의 앞창유리형타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질유리직장에서는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로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질좋은 앞창유리를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여러종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앞창유리의 모양이 설계의 요구대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룡전기재의 생산에 필요한 앞창유리의 가지수를 더욱 늘이고 그 질을 보다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김 학 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수천m의 방조제 건설

각지 간석지건설장에서

각지 간석지건설장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현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간석지건설자들은 최근 3개월동안에만도 자력갱생, 절사관철의 정신으로 공사속도를 높여 105만여㎥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백두의 굴함없는 공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헌신적으로 투쟁한 간석지건설자들의 대중적영웅주의가 안아온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입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광란하는 날바다와 싸워 지난 11월 15일까지 300여만㎥의 막돌과 토량으로 수십리 방조제를 쌓아 드디여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결속하는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였다.

종합기업소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사에 필요한 연유와 자재, 차바퀴 등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굴착기와 화물자동차, 불도젤을 비롯한 륜전설비들을 만가동시키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채석 및 토취장조건 또한 전례없이 불리한 속에서도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 기록창조의 분분초초를 이어나갔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함흥수리동력대학, 간석지연구소를 비롯한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른 지반에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찾아내여 완강히 실천하였다.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에서는 채석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굴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높은 굴진실적을 올리였다. 그리하여 방조제건설에 필요한 돌과 흙을 천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룡매도전역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방조제건설에서 련속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일별, 주별, 월별공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4구역 기본방조제와 3구역 2호중간방조제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갈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또한 채석장과 토취장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면서 전투지휘를 펴기있게 하였다.

각 분사업소에서는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매일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였다.

건설자들은 걸음마다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착기와 불도젤, 화물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여 분발해나섰다. 모두가 그날 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기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았다.

채석장과 토취장을 타고앉은 양화, 청단, 옹진, 신흥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주택건설분사업소, 선박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암질조건에 따르는 앞선 착암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속도를 최대한 높였다.

정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안석간석지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불타는 열의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갔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조국의 대지는 나날이 넓어지고있다.

본사기자

2 000여정보의 토지를 사회주의땅답게

토지정리돌격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나라의 모든 부침땅을 사회주의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토지정리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토지정리와 복구전투를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가을철전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2 000여정보의 토지를 정리 및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정리사업은 먼 후날에 가서도 두고두고 자랑해야 할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인것만큼 착실하게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휘부에서는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룡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수십종에 수천점의 부속품과 연유, 자재를 앞세워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작업의 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황해북도안의 황주군, 연산군, 송림시, 신평군에서 토지정리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황주군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의 토지를 남면서 정리할 목표밑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철도, 포남, 석정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들은 계획보다 1.2배이상의 토지를 더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혁신적인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실적을 높이였다.

연산군안의 여러 농장의 토지정리를 맡은 불도젤운전수들은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장만해놓고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하루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토지정리사업은 먼 후날에 가서도 두고두고 자랑해야 할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이다. 이것을 가슴깊이 새긴 시공일군들은 전투장에 눌러앉아 수평고루기와 논두렁짓기, 물길째기 등 여러 작업공정에 대한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질을 철저히 담보하였다. 그리하여 두달동안에 도안의 1 100여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남도안의 연안, 배천, 봉천군과 황해북도의 금천, 토산, 장풍, 정산군 등의 토지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성과를 확대하였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을 토지복구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그리하여 1 000여정보의 토지를 복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정 영 철

평양민족악기공장설비조립 추진

나라의 민족음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평양민족악기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악기생산을 늘이자면 악기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건설되는 공장은 어은금, 옥류금, 가야금을 비롯한 현악기들과 북, 장고, 저대, 단소를 비롯한 타악기, 목관악기들을 다량적으로 생산하여 전국적범위의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종합적인 민족악기생산기지이다.

대외건설지도국 문수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과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의 물심량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여 기본건축공사가 결속되였으며 현재 설비조립전투가 진행되고있다.

문화성에서는 민족악기생산기지를 하루빨리 완공할 기세드높이 화선식정치사업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자들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비조립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난 시기 악기제작에서는 손로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악기부분품들을 정밀하게 가공할수 있는 설비들이 새로 제작되게 되였다. 목재로 만드는 여러가지 악기부분품의 가공정밀도를 보장할수 있는 능률높은 CNC설비들이 제작되여 설치작업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밖에도 금형주조기, 목제건조로가 우리 식으로 설계되여 제작설치되였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여 지열에 의한 건물의 랭난방체계를 받아들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설비조립전투와 함께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전습도 동시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영양가높은 기능성식료품 개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장에서는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 프룩토올리고당요구르트, 페퇴르, 콩신첫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식료품들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는 21세기 가장 리상적인 식료품으로 알려진 스피룰리나를 콩우유가루에 첨가하여 만든 기능성건강제품으로서 어린이들의 면역강화와 성장발육에 대단히 좋은 식료품이다.

기능성올리고당의 하나인 프룩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만든 기능성식료품들도 사람의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은 물론 로인들도 리용하면 효과가 크다고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제품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영양식품들을 대비분석하여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공장일군들은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이바지할수 있는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세계적수준의 새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단계별전투를 조직지휘하였다.

평양어린이영양식료품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어린이들의 영양섭취과정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식료품개발에 힘을 넣었다.

이들은 스피룰리나를 제품에 첨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여러차례의 실험을 하고 련관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영양가높은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탕가루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우리의 천연단맛감을 리용하여 콩우유가루를 개발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곳 연구사들은 다시마콩우유가루, 여러가지 기능성단묵시제품도 개발하였다.

이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두뇌전, 기술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엄마젖에는 콩눈을 리용하여 녀성들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보충하여주는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기술과성원들과 현장로동자들도 과학기술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보다 특색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이들은 련관단위와의 련계밑에 미생물발효법으로 프룩토올리고당을 제조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음료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고 영양보충에도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새 제품도 개발하였다.

본사기자 전 혜 영

주체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타일을 보내기 위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평 찍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의 힘으로 인민경제의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만장약하고 전호를 박찬 병사마냥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에 돌입한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여오고있다.

기나긴 력사의 흐름에서 1년은 순간이다. 하지만 그 1년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미치는 충격은 비상히 크고 심원하다.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빛나는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한 기적창조의 해, 바로 어기에 주체107(2018)년의 력사적의미가 있고 자랑스러운 총화가 있다.

돌이켜볼수록 가슴은 긍지로 부풀고 새힘이 용솟음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정지에서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진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들, 존엄한 혁명의 록풍우를 헤치며 불사신마냥 솟구쳐오르는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구마다에서 창조된 영웅신화들은 또 얼마나 충진군대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는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 당앞에 결의한 뜨락또르생산목표를 완수한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고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로동계급, 석전만의 날마다 우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해상철길다리를 훌륭히 일떠세운 고암-탐촌철길건설자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쌍선체고기배를 무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로동계급, 기술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신의주화장품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천메기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지금 이 시각도 인민의 황홀한 리상향이 시시각각 펼쳐지고있는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건설장과 인민의 해양공원의 희한한 자태를 드러내며 눈부신 속도로 완공의 날을 향해 질풍치는 명사십리전역의 열기가 12월의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과학기술전선과 교육전선에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교육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얼마나 거창한 창조대전인가.

얼마나 환희롭고 장엄한 승리의 교향곡인가.

자력갱생의 직선주로를 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달려온 올해의 나날을 한가슴에 안아보며 우리는 격조높이 말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주체조선이 어떻게 승리를 이룩하며 무엇으로 백승만을 떨쳐가는가를 세계앞에 다시금 뚜렷이 보여준 주체107(2018)년의 장엄한 진군대하, 그것은 자력갱생강자들의 억센 기상이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정한 승리의 시간표따라 흘러온 이해의 날과 달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에로 온 나라를 산악같이 일떠세워주신 천출위인의 힘찬 발걸음소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터져오르게 하고 불굴의 공격정신이 거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주신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발걸음소리가.

지난 2월의 눈은 밤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이 다시금 눈앞에 삼삼히 밝혀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새형의 무궤도전차 시운전이 진행되였다. 사람들은 잠들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하시며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시내를 돌아보시였다.

겉만 보아서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고 하시며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닐 인민들의 립장에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다같이 꼼꼼히 살펴보자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일군들의 가슴을 후덥게 적셔주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믿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전차의 기술상태가 좋다고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걸작품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고 더없이 만족하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우리 원수님의 무한한 희열의 세계를 전하여주는 그날의 가슴뜨거운 말씀,

바로 여기에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만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는 자력갱생의 능수, 창조의 기인들로 키우시려 심혈을 바쳐가시고 인민은 그이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한몸을 쟁그리 불태우는 혈연의 관계, 이런 열화같은 사랑과 충정에 떠받들려 이해의 순간순간이 흘렀고 날과 달이 엮어졌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 전투적구호로 뜻깊은 올해의 출발구령을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기시였다.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보물고, 자력자강의 고향집!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거대한 진폭을 안고 오늘도 인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는것은 무엇인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자력으로 살아나가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을 틀어쥐는데 있다.

온 나라 인민이 이 고귀한 진리를 뼈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에 심장의 박동과 보폭을 맞추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각지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도록 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이 박력있게, 줄기차게 진행되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타번졌다.

온 나라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나래치던 지난 2월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자급자족,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고 그 관철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 듯싶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자는것이다.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으로 이 땅우에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는 이 귀중한 가르치심은 경제건설전반에 새로운 비약의 기상이 태동하고 혁명의 전진이 더욱 가속화될수 있게 한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였다. 단호한 결심과 강철의 의지, 세련된 령도력과 대담한 전개력,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께서 안아오신것이였다.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나라를 격동시킨 우리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강행군자욱이 천만의 가슴을 쿵쿵 울린다.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꾸리고 이룩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평양제약공장현대화와 흥남제약공장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공장을 산업시설맛이 나게 꾸린데 만족하지 말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정녕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크나큰 고무격려에 감격의 파도가 물결친 화폭이 그이께서 찾으신 어느 단위에선들 펼쳐지지 않았으랴.

인민의 심장은 화산같은 열기를 내뿜었고 격전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에 따르는 보답과 의리,

조선은 이 깨뜨릴수 없는 혼연일체로 자력갱생창조대전의 위대한 년륜을 아로새기였고 지금도 이 불변의 진리로 질풍노도치고있다.

사람들이여, 영원히 잊지 말자.

예지의 빛발로 우리 천만전사들의 가슴에 마를줄 모르는 사랑과 열정, 믿음을 안겨주신분, 자기 힘을 믿는 창조와 기적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분, 인민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그토록 만족해하시며 더 큰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불멸의 자욱자욱, 그 크나큰 로고와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지난 7월초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수많은 단위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우에 꽃펴난 이야기들을 되새겨보며 눈금을 적신다.

지난 7월 삼지연군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당일군들에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여서도 그이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요만한 양묘장을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탄복하게 된다고 하시며 무더위속에서 양묘장의 평범한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오래도록 기다리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지난 8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당부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들 어찌 저들의 티없는 충성의 땀방울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렵없이 갈것이라고,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들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았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삼지연군건설자들의 무비의 투쟁정신과 백절불굴의 창조본때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자기가 사는 군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말전파 비약의 원동력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정신에 있으며 천만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할 때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천만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대중적영웅주의, 전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며 경제건설대진군길에 력력히 아로새긴 기적적승리의 화폭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자력갱생창조대전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락월한 령도따라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활력있게 전진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펼쳐온 올해의 날과 달들,

참으로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서사시이며 절세위인의 슬하에서 자력자강을 생명으로, 생존방식으로 더욱 체질화한 자력갱생강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증명한 영광의 행로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억척으로 뿌리내리고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천연암반처럼 더욱 간직된것이야말로 올해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 낳은 가장 귀중한 결실이다.

시대가 우리를 더 큰 승리, 더 대담한 비약, 더 거창한 창조대전에로 부르고있다.

최후승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위대한 우리 인민의것이다.

최세의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우렁찬 선언이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진다.

자기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며 자기 힘을 부단히 키워나갈 때에만이 우리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일관하게 유지하면서 경제건설에서 자력부강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새길수록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긍지와 희열로 가슴부풀고 그이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야말 불같은 맹세로 천만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친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은 우리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자력갱생강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조국이여, 인민이여,

주체107(2018)년의 승리와 영광, 기쁨과 행복을 안아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용감하게, 더욱 기백있게 폭풍쳐달리자!

본사기자 김 성 남

자기 힘을 믿는 강자들로

날바다에 솟은 창조물을 보시며

지난 5월 완공된 고암-탐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누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흰갈기 물결만이 출렁이던 동해의 날바다에 아득히 뻗어나간 두줄기 궤도, 푸른 잔디들과 이채로운 장식관들로 단장된 호안, 산뜻한 가로등…

그 장쾌한 광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제낀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끝없는 격정으로 가슴적시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볼수록 흐뭇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있다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그이의 귀중한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일군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화고한 관점을 가지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았다.

값높은 평가, 크나큰 은정

지난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양묘장을 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강원도에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지난 1년간 양묘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대책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평가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강원도양묘장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자신의 로고는 뒤에 두시고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양묘장건설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기본적으로 도자체로 생산보장한데 대하여서도 치하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당에는 일감을 줄 맛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뛰여다니는 강원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하시면서 도의 경제사업에 절실한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는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자력갱생의 강자가 되여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실지 덕을 보는 공장이 되라

지난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장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일신시키고 당에서 정해준 년간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날다른 긍지와 자랑이 모두의 가슴마다에 넘쳐흐르고있었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볼수록 희한한 공장이라고, 생산환경의 견지에서 보나 건축미학적인 견지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는 최고로 완벽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이 10여년동안 생산하던 량을 한해동안에 생산한셈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그이의 뜻을 앞장에서 꽃피워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으신것은 삼복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지난 8월의 어느날이였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젓갈품생산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공장의 그 어디에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제품전시실에 진시된 시제품들을 보시고 한가지 물고기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할수 있는것은 다 해놓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젓갈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제품저장고를 찾으시여서도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감사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폭염이 쏟아져내리는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신 길 또 오시여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일군들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더욱 분발하여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김 성 훈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신념의 맹세 하늘땅에 차넘친다. 본사기자 찍음

깊이 새겨주신 혁명의 철리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는 우리의 혁명진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진 긍지높은 해로 력사의 갈피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조국청사에 승리와 번영의 년륜을 아로새긴 이해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우리 인민은 긍지높이 말한다.

자력갱생, 여기에 우리의 혁명진지를 천백배로 다지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 있다.

바로 이것이 자력자강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자욱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 누구나 더욱 깊이 간직한 철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길은 자력자강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승리의 신심드높이 분발하여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천백 우리 인민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적인민이라고,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혁명진지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자력갱생의 진지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진지를 자력갱생의 진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에는 우리의 진군대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박 차넘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으로 용기백배하여 질풍쳐나아갈 때 우리 혁명진지가 불패의것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진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이해의 나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만난시련을 뚫고헤치며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자라난 잊을수 없는 날과 달들이였다.

이해에 이 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자강력제일주의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일터마다,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에 우리 인민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온 나라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상으로 끓어번지고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가나 자력자강의 정신이 더욱 차넘치게 된것이야말로 이해의 자랑스러운 총화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며 우리 인민이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도록 불멸의 지침을 안겨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께서 안겨주신 신념과 배짱은 오늘 우리의 모든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다.

이 투쟁의 철리를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천만대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확신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의 투쟁을 벌려나갈 때 우리 조국의 국력은 백배해지고 우리의 혁명진지는 억척같이 다져질것이라는것을.

본사기자 림 정 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온 긍지높은 한해

더욱 굳건해진 철강재생산토대

금속공업부문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2018년이 저물어가고있다.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자랑스러운 이해에 우리 금속공업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볼 때 가장 뚜렷이 안겨오는것이 있다. 주체화, 현대화의 거센 불길이다.

자립의 강철기둥을 억척같이 세울 철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철강재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온 한해 불굴의 투쟁을 벌려왔다. 이 나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주체화의 길에서는 단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체득한 강철전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올해 전국의 철생산기지에서는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로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20여개의 주체화, 현대화대상이 일떠섰고 철강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두뇌전, 창조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 산소전로, 산소분리기, 각종 규격의 선재압연생산공정, 망간철생산공정, 합금철생산공정 등이 꾸려졌고 미량합금강생산기술, 아르곤정련기술, 질면열처리기술을 비롯하여 철강재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술들이 도입되여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지난 1월 16일 우리 식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아낸 김철의 로동계급은 2월 17일에는 주체강철을 생산하였다.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철강재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에 조국의 존엄과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있다는것을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고온공기연소식회전가열로가 일떠서 우리의 연료에 의한 인발강관생산을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돌격전을 벌리였다. 수백t이 넘는 제관품들과 중요핵심설비들, 내화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바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했고 우리 로동자들이 만들어냈다.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산소전로공사와 산소분리기설치공사를 진행하고 무연알탄생산공정의 이설 및 개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이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운다는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이들은 철강재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자, 연구사들은 주체철생산공정에 미량합금강생산기술, 아르곤정련기술 등 철강재의 질을 개선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도 받아들이였다.

홍산광산에서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전극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조건이 어렵고 부족되는것이 많지만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새로 설치하는 설비들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재령광산과 은률광산에서는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각지 철생산기지에 보장하기 위한 새 광구개발공사가 추진되고있다. 특히 재령광산에서는 룡철광을 자화배소하여 주체철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금속공업성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에서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강질을 개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주체화, 현대화만이 우리 식이라는 신념과 배짱으로 부령합금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원료소비량을 낮추고 전기를 절약하면서 질좋은 합금철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확립하였다.

흥남전극공장에서 점결제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각지 금속공장에 우리의 원료로 만든 전극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밖의 여러 단위에서도 많은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주체화실현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의 미더운 강철전사들은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또 한번 큰걸음을 내짚은 벅찬 올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금속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전혁철

—철도운수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철도현대화를 다그치며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리운영의 정보화 힘있게 추진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관리운영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철도성과 각 철도국, 분국, 역, 대, 소를 포괄하는 정보망을 구성하고 철도운수부문의 특성에 맞는 통합수송관리체계를 세워 수송조직과 지휘는 물론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수송업무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력탄집중수송화차 수십량에 무선식별카드가 설치되어 철도성과 평양철도국에서 전력생산정상화를 위한 화력탄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수 있게 되였다.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렬차위치추적체계를 도입하여 성과 철도국들에서 렬차들의 실시간움직임을 장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여러 중요렬차에 위치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시험운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성과를 모든 렬차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신의주철도분국, 북창철도분국관내의 여러 역에 실시간영상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주요역들의 수송지휘에서 질적변화가 일어났다.

평양철도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밑에 여러 정보설비와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무볼트고착장치 개발도입

철도운수부문에서 렬차운행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고 철길보수에 필요한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무볼트고착장치를 개발하고 여러 구간의 철길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철길강도를 높이는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각 철도국과 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꾸려진 콩크리트침목생산공정들을 짧은 기간에 개조하였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무볼트고착장치를 도입한 콩크리트침목생산량을 부쩍 늘이였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와 파흥철도공장, 함흥차량부속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무볼트고착장치의 부분품들인 고정쇠와 탄성누름쇠, 절연수지압착판과 폐루밀깔판생산전투를 과감히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성적으로 14만여정의 침목이 생산되였으며 각 철도국관내 여러 구간의 철길에서 침목교체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철길의 강도는 현저히 높아졌다.

본사기자 정경철

발전설비정비보강과 현대화

전력공업부문에서

뜻깊은 올해에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발전설비정비보강과 현대화실현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화력발전부문의 전력생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자력갱생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여러 호기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수십만kW능력의 발전설비들을 증설하고 그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로동계급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과 기술로 10여대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끝내였다.

발전설비현대화가 줄기차게 추진되어 화력발전소들에서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와 공기분리장치, 새로운 증기압력자동조절체계를 받아들이고 랭염수회수계통을 구성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가 창안도입되였다.

특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고온공기연소안정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높이 발전설비 및 수력구조물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과 전력생산공정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희천강발전소와 수풍발전소, 희천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10여대의 수차발전기와 각종 변압기, 차단기대보수과제를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장진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와 대동강발전소, 삼수발전소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와 금야강군민발전소의 로동계급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대의 수차발전기대보수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40여대의 수차발전기와 100여대의 변압기 및 차단기를 대보수하여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뿐만아니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저수지준설과 언제보강타입, 도중취수구의 보수작업을 다그치였다.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쥔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발전설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희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효률높은 새 수차를 도입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력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와 려자기, 각종 보호장치를 널리 받아들이며 통합생산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오늘 전력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며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투쟁해나갈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 필승의 신심에 넘쳐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계속 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새 탄밭마련과 기계화실현에 힘을 넣어

석탄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 경제전선의 전초선을 지켜선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에 새 탄밭마련과 막장작업의 기계화실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굴진을 앞세워 열어제낀 돌파구

올해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는 년산 수십만t능력의 새 탄밭이 개발되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새 탄밭개발에 떨쳐나선 평안남도안의 탄부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리였다. 결과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수천m에 달하는 방대한 굴진과제를 전부 결속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금 남양탄광에서는 새로 개발된 구역에 신속히 경을 전개하고 생산에 진입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태산탄광개발도 적극 추진되였다.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많은 량의 버력처리와 배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갱복구를 다그치였다. 또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뚫고헤치며 수백m에 달하는 기본굴진을 진행하여 전망이 좋은 새 탄밭을 찾아내였다.

자강도공급탄광과 룡천탄광에서도 새 탄밭을 마련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새 구역에 대한 굴진을 기한전에 끝내였다. 그리하여 새 탄밭에서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이밖에도 2.8직동청년탄광 북당골구역과 천성청년탄광 첨골구역에서 굴진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각지 탄전에서 새 탄밭마련을 위한 줄기찬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석탄공업성과 각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된 기술자, 기능공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과학기술섬멸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수백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되여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이 종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굴진, 채탄, 석탄운반실적이 뛰어올랐다.

능률적인 유연측막장장비들의 제작도입으로 석탄생산이 늘어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과 덕성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유연측을 리용하는 기계설비들을 제작도입하여 채탄막장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명학탄광, 남덕청년탄광, 령대탄광에서는 실정에 맞는 각종 긁개식콘베아와 다기능화된 판성식적재운반설비를 제작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순천, 덕천, 개천, 득장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는 자체로 능률적인 새형의 압축기들과 적재기들을 생산보장하여 굴진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각지 탄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앞선 천공방법, 발파방법들도 널리 창안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성능높은 기계제품들을 개발생산

기계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개발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더한층 강화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427만능종합가공반의 CNC화를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발전설비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가공하고 생산성도 현저히 끌어올릴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각 도에서 건설하는 보건산소공장들에 액체산소분리기를 도입할데 대하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의 기술집단은 액체산소분리기의 핵심설비라고 할수 있는 타빈팽창기와 액체산소탕크를 우리 식으로 설계하였다. 물론 이들앞에는 다른 나라의 설계를 그대로 참고하여 액체산소분리기를 손쉽게 제작할수 있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견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길을 꿋꿋이 내달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액체산소분리기를 만들어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CNC후라이스반, CNC보링반, CNC스프라인연마반 등을 새로 제작하였다.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자!

이것은 기계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 한해동안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간직된 일념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말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진출식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올해에도 자력갱생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여러가지 지구장비를 제작하여 그 생산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력갱생의 고귀한 창조물인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평양326전선공장, 성천강전기공장, 안주절연물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본사기자 리호성

◎ 경제건설전구마다에 새겨진 대진군의 뚜렷한 자욱 ◎

무심히 볼수 없다.

주체의 붉은 쇠물이 용암처럼 끓는 산소열법용광로와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가 용을 쓴다.

나라의 맏아들인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이들은 올해에만도 수십개의 주체화대상을 새로 일떠세워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5개년전략기간의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어디 그뿐이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어랑천5호발전소가 완공되고 유가금속회수공정 등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여러 생산공정과 생산기지가 자랑스럽게 일떠섰다.

경제건설대진군이 벌어지는 전구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온 애국자들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에 그대로 어리여온다.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천만산악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조선로동계급.

불굴의 그 정신력으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5개년전략고지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릴 그날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린다.

글 본사기자 리철옥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예견성있는 작전은 승리의 담보

재령벌안의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가을갈이에서 중시한 문제

안악군의 일군들은 진흙성분이 많은 포전들에 대한 가을갈이를 특별히 중시하고 선행시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올해농사과정을 분석해보면서 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진흙성분이 많은 포전들에 대한 가을철토양관리를 질적으로 해도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는것이였다.

물, 비료보장이 같은 조건에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오국, 덕성, 엄곶, 룡산협동농장의 올해농사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근적으로 이런 포전들이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였다.

군일군들은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일반적으로 진흙땅은 다른 토양에 비하여 알갱이구조가 치밀하다. 때문에 토양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농작물의 뿌리내리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자면 가을철에 땅을 갈아엎어 토양구조를 농작물생육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 더우기 봄철에는 눈과 함께 땅이 녹으면서 더 질어지기 때문에 뜨락또르가 포전작업을 하기 불리할뿐아니라 토양관리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요구대로 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이 농장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이런 포전들에 대한 논밭갈이를 먼저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가을철토양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올해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던것이다.

반면에 일부 농장일군들은 같이실적에만 원심을 쓰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올해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문제는 한해농사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군들이 다음해농사차비가 단순한 영농작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조건에 맞게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하지 못한데 있었다.

교훈을 찾은 군일군들은 련속공격전으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결의에 넘쳐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논밭갈이전투를 예견성있게 짜고들며 실천해나갔다.

농장들에서 진흙성분이 많은 포전들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지력을 높이는데 력량을 집중

높은 목표도 옳은 방법론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재령군의 일군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해농사차비에서 지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선 농장들에서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생물활성퇴비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작전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날알털기전투를 결속하면서 북지협동농장의 생물활성퇴비생산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이곳 농장원들이 날알털기를 끝내기 바쁘게 생물활성퇴비생산에 달라붙은것이였다. 질좋은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자면 원료준비도 잘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온도보장이였다. 추운 겨울에는 생물활성퇴비생산기일이 오랜것은 물론 품도 많이 들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날알털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서면 로력조직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어 생물활성퇴비생산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미리 준비를 잘해놓았다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생산한 생물활성퇴비는 질이 높아 알곡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높이 세운 목표를 점령하자면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에서 옳은 묘술을 찾아 빈틈없이 작전하여야 한다.

생물활성퇴비의 질이 보장된것만큼 지력이 높아진다. 이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농장들에서 생물활성퇴비생산조직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농장들에서 며칠 혹은 북데기에 종균과 물거름, 소석회를 골고루 섞어 일정한 규모로 쌓아놓았다. 이렇게 하니 며칠만에 그속에서 열이 나면서 생물활성퇴비로 되기 시작하였다.

좋은 점이 있었다. 우선 온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였다. 추운 겨울철에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할 때에는 온도보장에 많은 품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앞당겨 시작하니 기온이 높으므로 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였다. 더욱 좋은것은 생물활성퇴비생산기일이 짧아진것은 물론 그 질도 높은것이다.

신천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부식토의 질이자 흙보산비료의 질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 예견성있는 작전과 완강한 실천으로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 재령벌안의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일

중요구간 물길보수공사 진행

문덕군에서

얼마전 문덕군에서 어룡지구의 물길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어룡지구의 수백정보 농경지에 생명수를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군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어룡협동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에 나간 책임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보는 과정에 장마철에 흙이 쌓이는 구간들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양수장들을 개건하면 얼마든지 물통과 능력을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날알털기를 진행하면서 이 공사를 끝내자니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군책임일군들은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 돌격대를 조직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책임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필요한 물재를 운반하기 위한 사업도 드세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수천㎥의 물재를 날라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기초공사를 위한 암반까기전투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한점한점 뜯어내며 경사진을 벌리는 과정에 이들은 수천㎥의 암반까기를 끝내고 련이어 구조물공사에 들어갔다. 그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 결사의 정신을 안고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해나갔다.

군안의 녀맹원들이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한편 1단양수장개건공사를 맡은 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드높은 열의밑에 드센 공격전을 벌리였다. 이미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 이들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블로크생산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내밀었다. 그리하여 2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건축공사와 건물내외부 미장공사를 결속하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물길보수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 성 일

농사의 주인된 자각안고 다음해농사차비를 잘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정성군 생기령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에서

생물활성퇴비생산에 모를 박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거름생산은 곧 알곡증산입니다.》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는것을 다음해농사준비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모든 작업반에서 생물활성퇴비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보아 생물활성퇴비를 많이 리용한 결과가 대단히 좋았기때문이였다.

토지가 개량되여 지력이 높아졌다. 생물활성퇴비를 논밭에 내면 토양의 통기성과 물스밈성이 좋아졌다. 특히 토양의 부식질함량이 늘어난것은 물론 농작물의 뿌리발육이 좋아지고 영양성분흡수률도 높았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생산에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알곡수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에서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농장일군들은 한개 작업반씩 맡고나가 생물활성퇴비생산에로 대중을 불리일으켰다. 그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깊이 새겨주면서 생물활성퇴비생산방법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이들은 생물활성퇴비의 질보장을 위해 온도보장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것은 추운 겨울에 생물활성퇴비생산에서 온도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농장의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생물활성퇴비생산준비를 잘하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미리 마련해놓고 일정한 크기로 더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온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였으며 생물활성퇴비의 질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더욱 좋은것은 이 과정에 생물활성퇴비의 질보장을 위한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이들은 질좋은 생물활성퇴비 한줌이 쌀 한줌이라고 하면서 생산과정에 얻은 서로의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며 맡은 일에서 책임성을 다해나갔다.

결과 작업반, 분조들에서 질좋은 생물활성퇴비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증수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능률높은 논수평갈이보습 제작도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키세드높이 다음해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 가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종합토양관리기계를 볼수 있다.

이 농기계가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인 박사 최길남동무가 연구개발하고 이곳 기계화초병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제작완성하여 올해에 진행된 제45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1등으로 평가받은 《천리마-804》호 뜨락또르용 논수평갈이보습이다.

4각형모양으로 된 기본틀과 12개의 보습 그리고 써레장치로 되여있는 논수평갈이보습은 여러 공정의 영농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어 실리적이다.

그 작용원리를 보면 앞쪽에 배치된 6개의 보습은 젖혀갈이를 하여 흙밥을 바깥쪽으로, 뒤줄에 배치된 6개의 보습은 모아갈이를 하여 흙밥을 안쪽으로 옮겨 교체하는 방법으로 토양의 갈이수평을 보장하게 설계제작되였다.

뒤부분에 련결된 써레는 갈아놓은 흙밥을 부스러뜨리면서 수평고루기를 진행한다.

마른논상태에서 수평갈이와 써레치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 보습의 경제적효과성은 아주 크다.

올해농사에 이 련결농기계를 받아들인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의 경험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선 작업너비가 3m인 이 련결농기계의 교대당 작업량은 10정보로서 그 능률이 높다. 또한 정보당 연유소비량이 10㎏미만으로서 작업능률에 비해볼 때 종전보다 많은 연유를 절약할수 있다.

중요하게는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어 효과적이다. 지난 시기 리용하던 보습은 한쪽방향으로 흙을 뒤엎으면서 논갈이를 하기때문에 이동된 흙밥을 수평으로 고루기 위해 물논써레를 쳐야 하였다. 이때 토양이 다져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논벼의 뿌리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결국 뿌리활성에 지장을 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뿌리썩음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곡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리용하니 토양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논벼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다. 따라서 유효아지비를 훨씬 높여 정보당 알곡을 종전보다 적어도 15% 증수하였다.

누구나 실리가 크고 능률높은 농기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 농기계에는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숭절한 량심으로 받들어가려는 최길남동무를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들의 완강한 실천력이 뜨겁게 어려있다.

연구사들은 사회주의농촌에 필요한 《천리마-804》호 뜨락또르용 련결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왔다. 실패도 있었지만 대학당조직과 일군들, 집단의 뜨거운 고무와 아낌없는 방조가 있어 마침내 성과적으로 제작완성할수 있었다.

이곳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초병들의 풍부한 농기계제작과 수리경험도 성공의 밑거름이 되였다.

지금 이 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많은 단위에서는 다음해농사에서부터 이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많은 비료를 생산

송림시농기계작업소 유기질복합비료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에 힘을 넣으며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송림시의 일군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서 특별히 중시한것이 있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문제이다.

다수확의 중요한 담보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시농기계작업소 유기질복합비료작업반의 전투현장을 찾을 때마다 일군들이 늘 강조한 말이다.

옳은 말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질복합비료는 카루거름, 망간토, 《신양2》호복합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고농도후민산염, 소석회 등의 합리적인 배합으로 만들어졌다. 화학비료에 비해볼 때 그 효과성이 높을뿐아니라 지속기일도 2배나 된다는것이 최근 몇년간의 농사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였다고 한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 유기질복합비료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럴수록 작업반장 은주동무를 비롯한 이곳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맸다.

우리가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한줌이라도 더 생산해낼수록 나라의 쌀독에는 그만큼 더 많은 쌀이 채워진다.

이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이들이기에 올해농사에 필요했던 천수백t의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한 기세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농업부문에서 비료는 탄약과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깊이 새긴 이들은 누구나 두툼, 세몫을 해제꼈다.

이미전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에서 럭분해공정의 진공처리와 원료분쇄, 원료운반의 콘베아화를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의 기계화를 자체의 힘으로 실현한 이들의 열의는 충천하였고 실적은 날을 따라 뛰어올랐다.

《유기질복합비료는 넘려말고 다음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잠도리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앞을 다투며 유기질복합비료를 받아가는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이곳 작업반원들이 웃음속에 하는 말이다.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섰다는 주인된 자각과 뜨거운 진정에 넘친 이들의 목소리에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대성산체육단을 비롯한 40여개의 체육단들이 참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빙상호케이, 빙상휘거, 스키 등 6개 종목의 50여개 세부종목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3일 청춘거리 릉구경기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김장산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가 나라의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해나갈 우리 체육인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경기마다에서 자기들이 련마한 육체기술적 및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더 많은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이어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체육인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기대회는 28일까지 평양시, 삼지연군, 고원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진행된다.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을 위한 연회마련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을 위하여 3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체육성 제1부상 김정수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과 가족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룡남동지가 축하말언을 하였다.

그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미더운 녀자권투선수들의 성과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선수, 감독들이 앞으로도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더욱 분발하여 자신들을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방철미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은것은 자그마한 싹도 귀중히 여기고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훈련을 더욱 맹렬히 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진행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모임이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동지, 련관단위 일군들, 장애자들, 가족들, 시내근로자들과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올해에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소개하는 록화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장애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노래와 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중창 《조국찬가》, 기타4병창 《그대는 어머니》, 가야금독주 《노들강변》, 무용 《응해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격조높이 구가한 녀독창 《사랑의 빛발》,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등의 곡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속에서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는 기쁨과 랑만을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고있는 장애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 생활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것이 평범한 일로 되고있지만 혼자 알고있기에는 너무도 가슴뜨거운 사실이여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1월 어느날 류류영예군인인 저의 남편은 병이 도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락랑구여종합식당 승리2청량음료점 로동자 리은희동무가 보약과 별식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마도 짚어보고 점심도 해주면서 밤을 꼬박 밝히며 간호해주던 리은희동무는 저의 남편의 병이 호전되는것을 보고는 아침일찍 일터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가정부인인 그는 직장일로 늘 바쁜 속에서도 이렇게 저의 남편의 건강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군 하였던것입니다.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이래 대원 최진향동무도 자주 찾아와 저의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생활에서 불편한것은 없는가, 건강은 어떠한가고 다정히 물으며 지성을 다할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리은희동무와 최진향동무는 맡은 일에서도 책임성이 높아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었습니다.

인민반주민들도 저의 남편과 한식솔처럼 어울리며 기쁘게 해주고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회, 미덕의 향기가 공기처럼 흐르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중구역 중성동 40인민반 동 혜 선

백두산천지에 빙어를 옮겨 자래우는데 성공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를 길러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올해에 이번에는 천지에 빙어를 옮겨 자래우는데 성공하였다는 희한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자랑이고 우리 인민의 긍지입니다.》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경 백두산천지 락원온천부근에서 조사탐험을 진행하던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빙어를 발견하였다.

천지에 빙어를 옮겨 자래우기 위해 몇년전부터 고심어린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탐험대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그들은 백두산천지에서 빙어를 채집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길이 9~12㎝정도 되는 100여마리의 빙어를 채집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천지에 놓아준 빙어가 헌신적으로 서식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백두산천지에 빙어를 옮겨 자래워볼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였다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이 넘쳤다.

백두산천지에서 서식하는 빙어는 조선동해산 빙어를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강하천의 상류와 북부산간지대의 호수, 저수지들에 옮겨 적응시키는 과정에 습성이 달라져 몸길이가 짧아지고 일정한 변형이 생긴 비교적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찬물고기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는 천지에 산천어를 넣어 자래운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몇해동안 빙어의 알쓸이시키마다 빙어알을 받아 백두산천지에 옮겨 자래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탐험대원들은 수정된 빙어알을 물통에 담아 삼지연군 신무성로동자구까지 자동차로 수백리, 무두봉에서부터는 눈길을 헤치며 수십리를 행군하여 천지호반까지 운반하였다. 그리고 얼음장이 덮이지 않은 곳에 알을 넣어주었다.

하지만 물온도가 너무 낮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자연환경이 엄혹하여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백두산천지에 물고기들이 헤지어 다니게 하려는 열의에 충만된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였다.

거듭되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은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알해우기방법에서 태탕하게 벗어나 산 빙어를 천지에 옮겨 기르기로 결심하고 삼수호에서 채집하였다. 살아있는 빙어를 그대로 백두산천지까지 운반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빙어는 생활력이 약하여 조금만 상처가 생기거나 물에서 일단 건져내면 얼마 못 가서 죽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탐험대원들은 2 500여마리의 빙어를 2~3일간 물통에 넣은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 얼마든지 천지까지 운반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지난해 7월 탐험대원들은 백두산마루에서 천지호반까지 아슬아슬한 금강사를 내리며 빙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천지호반에 당도한 탐험대원들은 2 000여마리의 빙어는 천지에 그대로 놓아주고 500여마리는 시험못과 그물우리에서 15일정도 환경순응시킨 다음 놓아주었다.

탐험대원들은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 백두산천지에 빙어가 서식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원래 화산분화구에 생긴 호수에서는 물고기는 물론 그 어떤 부유식물도 생존하지 못한다는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여있었다.

백두산천지물은 맑고 깨끗할뿐아니라 광물질 등이 보통물에 비해 많고 필요한 미량원소들이 거의다 들어있다.

백두산천지에는 먹이원천이 풍부하므로 물고기자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산천어에 이어 또다시 빙어를 천지에 옮겨 자래우는데 성공함으로써 천지의 물고기종수가 늘어나게 된것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천하제일명산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현대적인 레이자절단기 연구제작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데서 의의가 큰 빛섬유레이자절단기를 훌륭히 연구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빛섬유레이자절단기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가공정밀도를 훨씬 높일수 있는 첨단기계제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레이자절단기는 강철재료뿐아니라 합금강이나 유색금속재료들을 임의의 형태로 빨리 절단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금속, 기계, 선박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특히 빛섬유레이자는 다른 레이자에 비하여 빛에네르기의 변환효률이 높고 운영원가가 낮으며 동작수명이 긴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개발리용되고있다.

조종기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종전에 비해 가공정밀도가 훨씬 높은 레이자절단기를 연구제작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절단하려는 소재와 레이자발생머리부사이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추종장치를 설계제작하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레이자절단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재를 절단하기때문에 절단소재와 레이자발생머리부사이의 거리보장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장치제작기술은 레이자절단기를 개발하는데서 핵심기술로 되여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발전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는 첨단기술이였다.

리광철실장을 비롯한 일용품연구집단은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과학기술전선의 주력부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첨단돌파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거리측정을 신속정확히 진행할수 있는 성능이 좋은 추종장치를 설계제작하게 되였다.

추종장치와 결합가능한 조종체계개발을 맡아나선 과학자들도 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일반조종장치와는 달리 레이자절단기의 조종장치는 수감된 자료를 절단속도에 맞추어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였다. 첨단수준의 수자조종기술을 도입한 조종장치제작을 맡은 조종장치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지난 시기 우리 식의 CNC조종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레이자절단기의 성능지표들을 충분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레이자절단기의 기계체계제작을 맡은 과학자들도 원가를 낮출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갔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종기계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비상한 창조적열정에 의해 가공정밀도가 높은 우리 식의 빛섬유레이자절단기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제작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박현

고려약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우시고려약공장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년간 고려약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공장의 일군들은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한편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일군들은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사상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은 이곳 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으며 그 과정에 고려약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공정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더욱 높이였다.

올해생산계획을 이미 넘쳐 수행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효능높은 고려약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정준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간석지건설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간석지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이 헌신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혐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간석지개간과 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자로 잡고 현실에 자주 나가 짧은 기간에 연구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강좌장 박성호, 연구사 리철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성원들은 지구환경과학부 정보지리연구실, 정보과학대학 쏘프트웨어공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이들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 나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전자지도에 의한 간석지건설지원체계, 경영업무지원체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개발하여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과 종합기업소의 경영관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강좌에서는 간석지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연구사 조정성, 김광림, 리천일동무들은 즉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시간을 쪼개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연구를 심화시킨 이들은 홍건도, 룡매도, 안석간석지건설장에 달려나가 홍건도간석지 1단계 마감막이호름해석, 위성화상자료에 의한 홍건도간석지수역의 물밑지형해석, 룡매도간석지 6구역 막이방안을 현장에 도입하여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는데 기여하였다.

연구사들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과 안석간석지, 룡매도간석지 4구역의 마감막이구간의 흐름해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도입하였다. 또한 이들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공사기간 여러차례 현지에 나가 콤퓨터를 결합한 음향측심기를 리용하여 방조제건설구간의 물밑지형상태를 조사하고 그곳 일군들과 암출침하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지난 11월 15일 1차물막이공사를 완공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교원 차성옥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지질학부 광물암석학강좌의 연구사들과 함께 염주군 룡북협동농장, 염주청년간석지농장에서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강좌의 연구사들은 고암-탑촌철길건설장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 힘을 합쳐 해상성토구간의 붕괴원인과 암출침하량을 확증하여 암출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공사를 제기일에 완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강좌에서는 환경보호강좌와 함께 염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농업정보봉사체계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영농계획작성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답게 간석지개간과 리용에 기여하는 훌륭한 연구성과를 더 많이 내놓아 당에 기쁨을 드리였다는 일념을 안고 강좌의 모든 성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피라는 사색과 탐구를 바쳐 이룩한 고귀한 충정과 불타는 열정의 산물이다.

강좌장은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더 좋은 성과들을 거두기 위해 이신작칙하는것과 함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총화를 실속있게 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교육과 연구사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교원, 연구사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짜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연구시간이 따로 없었지만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사색하고 토사색하였다.

이들은 오늘도 간석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연구성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애국적열의밑에 공사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킨 비결

‖ 과학기술전당 일군들의 사업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당의 대중체육방침에 의하여 어느 단위에나 체육을 하는 분위기가 서있고 체육시설들이 꾸려져있다. 그러나 실태는 다 같지 않다.

과학기술전당에 훌륭히 꾸려진 체육장은 과학의 섬에 나날이 높아가는 체육열의와 일군들의 체육사업에 대한 관점을 다시한번 두시해볼수 있게 한다.

이동식롱구대를 갖춘 롱구장과 여러개의 배구장, 정구장들, 재양을 씌운 갖가지 색의자들로 이루어진 드넓은 체육장에서 점심시간이면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다.

전당의 체육열풍을 엿볼수 있게 하는 이런 체육장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는가.

올해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에서 과학기술전당은 순위권에 입선하지 못하였다.

성의있는 지원과 따뜻한 고무를 해준 종업원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데 대해 심한 가책을 느끼며 전당으로 돌아온 당책임일군은 무거운 마음으로 체육장에 홀로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 중앙기관들가운데서 대중체육을 잘하는 단위로 널리 소문도 나있고 앞서 진행된 제23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에서 종합 1등까지 하였던 우리 단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눈에 체육장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안겨들었다. 당의 은정속에 전당의 준공과 함께 꾸려진 체육장은 단위의 대중체육사업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었다. 주인다운 마음으로 종업원모두가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왔으나 하도 리용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것이다. 대중체육의 불길이 식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자면 질적적으로 체육장의 면모를 보다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슬어슬해졌지만 심한 자책속에 체육장의 불비한 점을 구석구석 찾아보는 일군의 모습은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군들이 지체없이 체육장을 새로 개건하자는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종업원모두가 열렬히 지지해나섰다. 전당에 보다 훌륭한 체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곧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이기도 하였다. 모두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의 마음과 대중의 열의가 합쳐지니 무서운 힘이 분출되였다.

처음에는 체육장바닥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아예 세멘트포장을 다시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였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더 높은 요구를 내세웠다. 소극적으로 보수할것이 아니라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이번 기회에 령도업적단위답게 체육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자는것이다. 대중체육의 불길이 식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자면 질적적으로 체육장의 면모를 보다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슬어슬해졌지만 심한 자책속에 체육장의 불비한 점을 구석구석 찾아보는 일군의 모습은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군들이 지체없이 체육장을 새로 개건하자는 문제를 제기하도 료해하며 건설자들과 함께 일손을 잡았다. 그것이 곧 힘있는 돌격구령이 되여 대중의 열의를 더욱 앙양시켰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을 말없는 호소로 받아들인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40여명의 청년들이 돌격대에 망라되여 철야전투를 벌렸으며 자체의 기술력량이 발동되여 수정맞추기, 관람석설치, 재양씌우기 등 모든 개건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내밀었다. 공사는 불과 보름만에 끝났다.

짧은 기간에 대중체육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이곳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언급하고싶은 문제가 있다.

종업원대중이 지난 시기 희열과 망만에 넘친 생활속에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지 체험하고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들였기에 이런 훌륭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것이다.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 자기 단위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 대중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있는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립증한것이다.

과학의 섬에 일어번지는 드세찬 체육열풍속에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 자기 단위의 전투력을 과시하려는 집단주의정신이 얼마나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가 하는것은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기가 진행될 때면 전체 종업원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 생활화되여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과학의 섬에 체육열풍이 끊임없이 고조되고있는 비결을 여러가지로 분석해볼수 있지만 기본은 체육사업도 역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이다. 드높은 체육열의속에 단위의 전투력을 다져왔으며 그 나날속에 일군들과 대중이 하나로 합심하여 집단주의위력으로 짧은 기간에 체육시설을 몰라보게 일신시킨 과학기술전당의 성과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강효심

의료봉사활동에 최신의학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다.
—류경치과병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나라의 농업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준 의의깊은 계기

전국농업부문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얼마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농업연구원창립 70돐을 맞으며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전국농업부문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알곡작물종자분과, 과학농사분과, 농업화학 및 생물농약분과, 수의축산분과, 과수남새공예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토론회 및 전시회에는 나라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12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와 250여종에 700여점의 전시품이 출품되였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들과 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과 생산단위 기술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를 안내한 농업연구원 부원장 김창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새로운 농기계개발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데 연구사업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밀어 이번 전시회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종자부문연구성과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농업연구원의 처장 한영환동무는 새롭게 육종해낸 다수확벼품종들과 강냉이, 감자, 밀, 보리 등 여러가지 알곡과 남새, 과일품종에 대하여 자랑삼아 설명해주었다.

하나하나의 품종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합하면서도 소출이 높고 불리한 환경조건과 병에 대한 전딜성이 강한 농작물품종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학농법을 연구도입하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속깊이 새기고 랑강도농업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불리한 환경에 견디는 힘이 강하면서도 소출을 높일수 있는 감자품종과 함께 강냉이, 콩, 밀, 보리품종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농업연구원 벼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연구한 수확고가 높고 병견딜성이 강한 논벼품종과 강냉이품종앞에서 참관자들은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남새, 과일품종들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도 컸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연구한 《8월풀2》호만 놓고보아도 당함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정보당 마른잎소출이 표준품종보다 더 높았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도마도품종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줄도마도》, 《채색소형도마도》, 《주름도마도》를 육성한 연구성과들도 참관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우리는 농업연구원 작물재배연구소 일군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도입가능성이 높은 여러가지 우수한 과학기술적성과가 많이 출품된것이 이번 전시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농업연구원 작물재배연구소에서는 영농지대와 로력을 절약하고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재배기술을 배합한 많은 성과를 내놓았다고 말하였다.

그중에서도 작물재배연구소 유기농법연구실에서 내놓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흑비작물종합재배기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이 기술은 앞그루재배, 사이그루재배, 그루바꿈형식으로 카올호밀을 비롯한 흑비작물을 재배하여 알곡소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기질비료원천을 마련하고 지력을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어 실리적이였다.

우리는 참관자들이 흥성이는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전시대로 향하였다. 여기에 전시된 벼종자영양피복제와 작종생물비료, 성장촉진제, 생물농약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창조품이였다.

출품된 모든것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이 첨단돌파의 높은 목표밑에 이룩한 성과들인것으로 하여 우리는 전시대앞을 무심히 지날수 없었다.

많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생들도 현실에서 주목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한 자랑을 안고 참가하였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는 이번에 《8월풀2》호의 육성과 특성》, 《수자조종 벼, 밀보리파종기의 도임효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와 전시품들을 내놓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포농업대학, 청진농업대학, 리과대학, 김제원해주농업대학에서 이룩한 성과들도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전인력과 감화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되였다.

돌아볼수록 전시회장은 20대의 젊은 박사원생으로부터 나이지숙한 로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수많은 성과들로 꽉 차있었다.

실로 그 하나하나의 성과가 귀중한 재부였다. 이 모든것은 현실에서 실지 은이 나게 할 때 비로소 과학자, 기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투철한 립장을 가지고 생산도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 농업과학기술인재들의 지혜와 열정의 결정체가 아니랴.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종합심사는 단체부류와 개인부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단체부류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 농업화학화연구소, 랑강도농업과학연구소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류에서는 농업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 소장 김성진동무의 《위성정보해석기술과 농작물생육모의기술에 기초한 협동농장별 논벼, 강냉이 예상수확고 평가방법》을 비롯하여 5건의 연구성과가 1등으로 평가되였다.

랑강도농업과학연구소 소장 리석남동무의 《삼지연군 과학농사개발과 도임》을 비롯하여 25건의 연구성과가 2등으로,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실장 문정원동무의 《비료반응성에 의한 주요벼품종구분과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35건의 연구성과가 3등으로 평가되였다.

착상발표회에 대한 종합심사도 있었다.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연구사 전연희, 류천일동무를 비롯한 15명과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만복동무를 비롯한 40명이 우수한 착상자로 평가되였다.

참으로 이번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회는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어부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으며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때 얼마든지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충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과학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인민의 행복창조를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이 항유하게 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올해에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정당들이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민주콩고로동자당, 단마르크의 공산당, 로씨야총인민동맹당,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이 력사적인 평양선언에 서명하였다. 주체81(1992)년 4월 평양선언이 발표된이래 수많은 나라 당들이 선언에 서명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력사의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라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여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고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부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며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 철의 론리로 완벽하게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준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향이고 의지이며 인류의 리상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사회주의도 영원히 승승장구한다. 이것이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확증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는 길을 택한 우리 인민과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포악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진 준엄한 시기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일떠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왔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였고 사회주의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민주콩고신문 《라브니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웅근 한면에 걸쳐 특집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는 불후의 저서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으며 그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한다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 인민을 믿고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킬수록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 정치가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한데로부터 제국주의자들에게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의 기회를 주고 제도전복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게 해주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진보적인류는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데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성이 있다고 찬탄하고있다.

수령의 령도에 충직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할 때 불패의 강국이 일떠서게 된다는것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력사가 보여주는 철리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조 택 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리행에 떨쳐나설것을 결의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자주통일, 평화번영운동련대가 11월 27일 서울에서 공동대표회의를 가지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리행과 단체의 행동방향에 대해 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문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리정표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제 정당,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것을 요구한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결의문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 통제를 전면배격하며 외세와 결탁한 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에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날을 앞당겨나가는 민족의 장엄한 대행진에 언제나 함께 할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원회)가 일본 도꾜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모임을 가지였다.

손형근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 안병옥명예의장과 부의장들인 서충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리동제 제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위원회대표단성원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손형근의장의 발언에 이어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6.15일본지역위원회대표단의 활동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민족통일대회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통일운동의 요구에 맞게 북과 남, 해외의 련대운동조직인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향한 오늘의 력사적흐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이 큰 결단과 탁대한 애국의지가 가져다준것이며 이 흐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조국통일구상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자기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모임에서는 광범한 동포들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에서 조국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며 3.1인민봉기 100돐에 즈음한 행사를 조직할데 대한 당면사업방향이 발표되였다.

모임에서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 등을 수록한 영상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륜도 법도도 모르는 야만의 무리

얼마전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되였던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되였다. 남조선각계층은 이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일본정부가 먼저주었던 돈을 시급히 반환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일본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는것이 우선이며 돈만으로는 잘못된 력사를 덮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이 《화해, 치유재단》해산결정에 반발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일본집권자와 외상, 내각관방장관 등 고위인물들은 줄줄이 나서서 《국가간 합의》이니, 《받아들일수 없다.》느니 하고 고아댔다. 자민당패거리들도 《화해, 치유재단》해산결정을 반대하고 일본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는것을 제택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일본의 보수언론들 역시 《일방적인 해산》이니, 《불신》이니 하고 토달거리면서 이번 사건으로 남조선과의 관계가 악화될수 있다고 침을 놓고있다.

인류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섬나라족속들의 파렴치한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국가간 합의》라고 생떼를 쓰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로 말하면 박근혜역도가 몇푼의 돈을 받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해주기로 밀약한 불법무법의 매국문서이다.

널리 폭로된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유린하다 못해 잔악무도하게 학살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지금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침략군무리에게 강제로 끌려가 녀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뼈에 사무친 원한을 안고 몸부림치고있다.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는 일본이 이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친일매국근성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패당은 이것을 무시하고 일본이 먼저주는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릴것을 밀약하는 쌀개빠진 역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일본이 지불하는 돈에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는 억겨운 나발질로 저들의 친일매국행위를 합리화하면서 《화해, 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몇푼의 돈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해버리기 위한 한갖 도구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은 저들이 내는 돈은 배상금이 아니며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세운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철거하여야 돈을 지불할수 있다고 하면서 심히 오만무례하게 놀아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박근혜패당은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에게 미리를 조아리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망동을 부리였다.

보다싶이 글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로 꾸며진 《화해, 치유재단》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민족적수치와 참을수 없는 모욕감밖에 가져다준것이 없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와 《화해, 치유재단》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친일매국의 대명사로, 현대판 《을사5조약》으로 락인되고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여왔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우리 민족,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파렴치한 협잡문서를 내흔들며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운운하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인륜도 법도도 모르는 야만의 무리이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죄악에 찬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서는 정상국가의 모자를 쓸수 없다.

우리 겨레는 박근혜패당이 조작해낸 글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완전히 페기하고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민족의 피맺힌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반드시 청산되여야 한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청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노예피해자들과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사이의 정치적야합의 산물이라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책임을 명확히 인정할 때에만 합의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화해, 치유재단》은 애초에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으로서 그것을 해산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가해자가 어떻게 공공연히 력사를 부정하게 되였는지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일 압력적인 결탁이 있었다면 그 내막을 낱낱이 규명하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다른 야당들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이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은 치유가 있을수 있는가고 하면서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한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집회를 가지고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녀성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준데 대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방적인 제재가 세계경제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주장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1월 30일 브리스지도자들과의 상봉석상에서 일방적인 제재가 세계경제의 기초를 파괴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늘날 비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 그리고 유엔헌장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공인된 법규범들을 우회하여 보호무역조치들을 리용하려는 부당한 현상이 만연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모든것은 국제무대에서의 협조분위기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으며 세계경제를 파괴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세계공통제앞에 나선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상존중과 서로의 리해관계에 기초하는 일치한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브리스성원국들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완전무결한 국제관계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그는 테로분자들을 지정학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류혈적인 만행을 감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테로그루빠들에 대해서는 이중기준이나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경제관리에 대한 평가사업의 중요성 강조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최근 올해 경제사업과 다음해 전망을 토의하는 내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경제관리에 대한 평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관리에 대한 옳바른 평가사업은 중요한 혁명임무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 결과에 민심이 반영되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강력한 실무집단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연구하며 경제분야의 재능있는 지식인들과 연구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새 무장장비 개발생산

이란에서 최근 선진적인 국내산 장갑차의 생산흐름선이 가동을 시작하였다.

속도가 100km/h이고 위력한 무장장비를 갖춘 장갑차는 가파로운 경사지와 산등선을 비롯한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한다.

한편 1일 반다르 아바스지역에서 자체로 개발한 구축함을 진수하였다.

《사한드》로 명명된 이 구축함은 스텔스기능과 전자전능력, 직승기착륙장, 어뢰발사관, 반항공 및 반함선포, 해상대해상미싸일과 해상대공중미싸일을 갖추고있다. 이란군 해군사령관은 진수된 구축함이 이란전문가들의 기술에 의거하여 대담하고 창조적으로 설계되고 건조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주도 련합군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사망

수리아의 데이르 알 주르도에서 미국주도 련합군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11월에만도 20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어린이가 77명, 녀성이 57명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반테로》의 명목밑에 집요하게 감행되는 비인간적인 살륙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결정 규탄

아랍국가련맹 팔레스티나문제담당 부총서기가 최근 팔레스티나정부관리들에게 려행금지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정부관리들의 려행 및 서신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는 이를 국제 및 인도주의법에 대한 위반행위로 락인하고 시급히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황 의 시 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일 최저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살림집가격의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집이 없어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위로 시내교통이 혼란에 빠졌다 한다.

경제발전성과

로씨야가 최근 3.5t의 화물을 운반할수 있는 우주화물선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우주화물선은 운반로케트에 의해 궤도에 진입될것이라고 한다.

* *

르완다에서 6월말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무역적자가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15.2% 감소되였다.

이 기간 인플레률은 4.5% 줄어들었다고 11월 29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한편 6월말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경제가 그전 회계년도의 3.4%로부터 8.9%로 장성하였다.

11월 29일 르완다중앙은행은 그 기간 농업, 공업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밝혔다.

* *

잠비아에서 11월에 인플레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 줄어들었다.

그것은 운수부문에서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데 있다고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 *

브라질에서 올해 3.4분기에 국내총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3% 장성하였다.

11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은 그 기간 농업과 봉사업, 공업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밝혔다.

* *

짐바브웨에서 10월까지의 올해 목화수확계절에 14만 2 700t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의 수확계절에 비해 거의 2배 더 많은것으로서 지난 5년동안의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11월 29일 이 나라 신문 《헤랄드》가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갈피에서

출근시간에 일으킨 전쟁

세계전쟁사에는 상대방이 해이된 틈을 타서 불의에 전쟁을 도발한 실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파쑈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도, 일제의 진주만공격도 모두 사람들의 긴장성이 풀린 시기에 감행되였다.

제3차 중동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지역정세는 긴장하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팔미암아 아랍나라들 특히 에짚트, 수리아, 요르단의 민족적독립과 령토완정이 계속 위협당하고있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불의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군사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에짚트군사령부에서는 선행전쟁경험으로 보아 전쟁이 새벽에 개시될수 있다고 타산하고 동틀무렵에 전투기편대들을 리륙시켜 공중에서 기습해올 이스라엘군전투기들을 경계하군 하였다.

몇시간동안이나 긴장한 상태에서 비행하던 에짚트군전투기들은 아침 8시가 되면 비행장에 착륙하여 연유를 보급받군 하였다.

또한 에짚트군전파탐지수들도 전투기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날밤을무릅쓰고 긴장하게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다가 8시 30분이 되면 전파탐지기의 가동을 멈추고 정상일과로 넘어가군 하였다.

제2차 중동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에짚트군의 일거일동을 주시해온 이스라엘은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패채를 올리였다. 아침 8시 30분이후야말로 절호의 공격기회였기때문이다.

당시 에짚트군장교들의 부대출근시간은 9시까지였다고 한다.

1967년 6월 5일 8시 45분 이스라엘은 에짚트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출근길에 있던 에짚트군장교들은 내리꽂히는 이스라엘군전투기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한다.

한 언론은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은 불의에 선제공격을 하였다. 이스라엘군전투기조종사들은 페이다와 미싸일기지를 파괴한 뒤 에짚트군전투기들을 대부분 불태웠고 극비로 운영되던 병기공장까지 찾아내여 날려버렸다. 이스라엘기갑부대는 기습공격으로 꾸드스를 차지했다. 이스라엘군이 순식간에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역, 골란고원, 시나이반도전체를 장악해 전쟁은 6일만에 종료되였다.》

당시 에짚트군이 보유하고있던 비행기 총대수의 80%가 넘는 300여대가 불타버렸다고 한다.

제3차 중동전쟁은 바로 이렇게 진행되였다. 전쟁은 이 지역의 정치지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에짚트의 시나이반도와 수리아의 골란고원, 요르단강서안지역 등 6만 5 000㎢의 넓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에짚트가 해이된 틈을 어떻게 알아냈는가.

다른 언론은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미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스라엘이 믿었던 핵심전투력은 바로 정보원들이였다. 이스라엘은 적극에 정보원들을 침투시켰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 군사적인 렬세를 배꾸었다.》

본사기자

치렬해지고있는 중미무역전쟁

최근 미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 성원국인 중국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중국을 기구에서 제명시키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다무적기구이지 미국이 혼자서 내온것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며 미국의 결심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제명하게 될것이라는 미국의 개별적인물의 암시는 황당무계한것으로서 그것은 강권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물골과 유아독존적인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며 격화되여온 중미무역전쟁이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각까지도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미행정부는 동맹국들에 중국《화위》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이 회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안을 모색하고있다.

《화위》회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행정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 나라 정부가 무법천지로 행동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통상대표부가 중국에 대한 301조사보고서를 정신하고 비난의 도수를 보다 높이였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어려차례에 걸쳐 301조사를 진행하고 취한 해당 무역조치들은 저들의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측이 모든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것이며 세계무역기구의 다무적규칙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측이 쌍방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파괴하는 언행을 중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중미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정확한 궤도에 들어서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서로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에는 중미관계가 평전에로 치달고있다는 내용의 론평이 실렸다.

론평은 중국의 경제장성을 주시하는 미국은 마치도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같다고 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평하였다.

또한 미집권자가 국내의 정치적기반을 다지는데서 반중국립장을 취하는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입버릇처럼 되여가고있는것이 미국회의 실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립장과 태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현재 중미 두 나라간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장성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더욱 증대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1년에 이르러 세계경제장성률이 0.8% 감소될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과거의 무역전쟁들이 그러했듯이 중미무역전쟁 역시 두 나라에 큰 경제적타격을 줄것이다.

중미무역전쟁의 후과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있는 가운데 무역전쟁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예측과 분석에 세계적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얼마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열린 아페크수뇌자회의가 중미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한채 실패로 막을 내린것은 두 나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실지에 있어서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중미무역전쟁이 순수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에 국한된것이 아니며 이것은 중국남해와 대만문제에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있다.

무역전쟁이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요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전을 몰아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본사기자 박 예 경

과학기술소식

새로운 정수기 개발

어느 한 나라에서 낡은 연수도관을 통해 흐르는 물에 섞여있는 연을 비롯한 중금속을 효률적으로 흡착, 제거하는 결정재료인 미립자를 개발하고 흑대용정수기에 응용하였다. 이 정수기는 새로운 재료인 삼리탄산나트리움의 이름을 따서 《나리오》라고 부른다. 연구집단은 이 재료를 높은 온도에서 소성하지 않고 무기물매속에서 층모양의 결정으로 성장시키는 독특한 제조법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재료는 리탄산층과 나트리움층이 서로 접촉있는데 나트리움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대신 연 등을 흡착한다고 한다. 《나리오》용량 330ml에는 수도물의 전류염소를 흡착하는 활성탄에 새로운 결정미립자를 섞어 굳힌 통이 리용된다.

세균은 제거되지 않기때문에 막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첨가하는것이 검토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ㄱ-18119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